신현묵(소프트웨어 개발자) 1차 구술

1. **구술자**: 신현묵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3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4분 3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뉴리더’, ‘우리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구술자 : 처음에 고 (소프트웨어 개발)의뢰를, 노 대통령님께서 의뢰를 하셨고 아마 아는 후배로 기억을 해요. ‘뉴리더 원(1)’을 구육(96)버전이었나, 구오(95)버전이었나를 먼저 만들었었고. 소위 말해서 디엠(DM)[1]까지 기능이 들어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랬었고 그거를 네트웤(network) 버전하고 더 기능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찾았고. 그때 아마 처음 제가 수주 받은 금액이 오백(500)만원이었던가? 예, 원래는 그냥 한 삼(3)개월에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삼(3)개월 끝날 일인데 저도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또 하시던 게 매력적이어 가지고 몇 년을 계속하게 됐죠. 처음에는 몇 백(100) 만원 그냥 일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재밌었어요.

(개발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가끔 설득을 시킬 때가 있었는데, 있으시면 고집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회의 들어가면은 설득당해서 나오거든요. 설득당할 때까지 회의하세요. 그 새벽 세시까지 회의했던 게 지금도 그냥 끔찍해요.(웃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뭐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개발할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서 저도 애먹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줄일려고 하고. (노 대통령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만드, 혼자 어떤 뭐라 그럴까, 처음 ‘뉴리더’는 그랬거든요. 선거 같은 거 하게 되면 명부관리 하잖아요. 그것을 시작을 했다가 명부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기록, 자료, 신문기사, 아이디어들, 뭐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문, 후배, 선후배 언제 만났던 사람 그런 걸 관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은 언제 만났지’ 뭐 이런 거 넣어 놓으면 그 릴레이션(relation) 관리

1) Direct Message, 쪽지를 주고받는 기능.

했고, 릴레이션 관리했고. 찾을 때도 좀 이렇게 하나 잡아당기면 주루룩 나오게 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선 당연한 기능들인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것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쓸 수 있게 해놔라 하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은 거의 그룹웨어(groupware)가, 그때 그룹웨어가 국내에 별루 안 만들어진 시기였었는데 그룹웨어 기능들도 엄청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뉴리더' 아마 얘기는 하시는 게 뭐 세상, 새로운 이끄는 사람 이런 컨셉(concept)이라고 애기하셨던 기억이 문득 나요. 근데 그때는 뭐 이름을 '어쨌든 이름은 져야(지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그때 아마 뉴리더, 뉴리더라는 말을 곳곳에서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쓰시던 중요 키워드, 뉴리더, 리더, 뉴리더, 우리들, 노하우 이게 키워드셨죠. 키워드셨죠. '뉴리더'가 사람 앞, 내가 이끄는 사람이라는 컨셉에서 '우리들'(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본인을 점점 낮추셨어요. 난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었고 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랬던 것 같애요. '노하우' 만들 때 얘기하셨던 걸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 역시 상상하는 사람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미시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큰 생각을 잘 못 읽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2)]

얘기를 뭐 몇 마디를 한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정보공유 방법, 특히나 그 정보가 만들어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저랑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쌓아야 되고 어떻게 릴레이션을 걸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의 저랑 얘기 나누신 건 정보공유 방법이었어요. 그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뉴리더' 할 때는 혼자서 관리하시는 거였고 '우리들' 할 때는 팀, '노하우' 가셨을 땐 이제 공유. 인터넷 막 접점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공유방법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사실은 그냥 지식공유였어요. 지식공유, 소통 이거셨어요. 다만 과거에는 기술이 안 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저도 그때 한참 소프트웨어 개발하니까 그나마 제가 좀 이해를 해서 '우리들' 컨셉 디자인해드리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2) 구술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과정은 1996년 작업해 1997년 초에 선보인 '뉴리더'에서 '우리들98', '노하우 2000'으로 이어졌다.

제 생각에는 말은 조금씩 바뀌셨지만 기본 컨셉은 변한 적 없으세요. 언제나 정보공유 그 다음에 소통. 예, 그 컨셉은 크게 변하지 않았었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72. 인천 출생

1990년대 이래 온라인게임 개발, 제약·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정보시스템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해 옴.

1996년 하반기 '뉴리더'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우리들' 소프트웨어 개발과 '노하우2000' 초기 버전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1997년 3월 16일 결혼식에 노 대통령이 주례를 서기도 했다. 그 같은 인연이 2010년 5월 주간지 '한겨레21' 811호에 소개된 바 있다.